

“한국 스포츠사 큰 획 그으신 분이셨는데...”

체육계, 대통령 재임 시절 각별한 인연 떠올리며 애도 야구장에서 태권도 경기장에서... 선수·관중 추모 대열

김대중 前 대통령 서거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거한 18일 체육계도 대통령 재임 시절 각별한 인연을 떠올리며 애도했다.

18일 KIA와 히어로즈 경기가 열리는 광주 무등경기장야구장 등 프로야구 구장과 태권도 경기장 등 전국 경기장에도 추모 분위기가 이어졌다.

김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광주구장을 흠으로 쓰는 KIA 타이거즈는 이날 광주구장에서 열리는 히어로즈와 경기에 앞서 묵념을 하며 김 전 대통령을 추모했다.

또한 광주, 잠실, 대전, 사직구장 등 이날 프로야구가 열리는 4개 구장에서는 단체 응원전을 펼치지 않기로 했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때처럼 각 구단은 응원음악을 틀지 않고 응원단장과 치어리더가 주도하는 응원은 보이지 않는다.

또 구단들은 경기장을 찾은 팬들에게도 경건한 분위기에서 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두산 베어스는 잠실구장에서

열릴 LG 트윈스와 흥경기 때 시구와 각종 선물을 나눠주는 전광판 이벤트도 취소했다.

한국야구위원회(KBO) 관계자는 “김 전 대통령을 추모하기 위해 열릴 예정이던 단체 응원을 자제하도록 8개 구단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조중연 대한축구협회 회장은 “한·일 월드컵 당시 경기장이 오실 때마다 직접 모시고 다녔던 게 생생하다. 한국 축구 4강 신화의 현장에 계셨던 분이어서 더욱 안타깝다”며 서거 소식의 충격을 전했다.

이날 프로축구 경기가 없었던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추모 방식을 결정해 19일 피스컵 코리아 준결승이 열리는 서울 월드컵경기장과 부산 아시안드주경기장에서 김 전 대통령을 추모할 계획이다.

연맹 관계자는 “이전에 노 전 대통령 서거 때와 비슷하게 경기 전에 묵념하고 조기를 달며 서포터스의 과도한 응원을 자제하도록 요청할 것 같다”고 전했다.

남녀 프로농구를 총괄하는 한국농구연맹(KBL)과 한국여자농구연맹(WKBL)의 수장들도 추모 분위기에 동참했다.

지난 1999년부터 WKBL을 이끌어왔던 김원길 총재는 “IMF 사태 당시 실업률이 13개에서 5개로 줄고 그나마 구조조정, 흡수합병 등으로 정부 지원을 받는 금융기관은 프로팀을 못 갖게 하는 등 여자농구의 위기가 이 논의 끝에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던 나를 추천해 총재를 맡게 됐다”며 인연을 소개했다.

국기(國技) 태권도도 추모 대열에 동참했다. 이날 오후 제5회 코리아오픈 국제태권도대회가 열린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는 51개국에서 온 선수와 임원 1천825명이 개회식에 앞서 일제히 묵념으로 김 전 대통령의 서거를 추모했다.

이밖에 체육진흥공단이사장배 카누대회가 열린 경기도 하남시 미사리조종카누경기장에서는 서거 소식에 시합장에 걸린 태극기를 조기 형태로 게양하며 추모에 동참했다. /연합뉴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지난 2000년 시드니올림픽 남북통일 동시 입장·2002년 한·일월드컵 성공 개최 등 한국 체육사에도 큰 획을 그었다. 사진은 지난 2002년 6월25일 한·일월드컵축구 한국과 독일의 준결승이 열린 서울 삼삼월드컵경기장을 이희호 여사와 함께 방문, 관중들에게 인사하고 있는 모습이다. /연합뉴스

대통령 응원했던 경기에선 어김없이 승리 한국 4강 신화 창조 ‘숨은 지원자’

2002 월드컵과의 인연

“은 국민은 물론 전 세계인의 이목이 한 일 월드컵에 쏠렸던 2002년에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축구에 신경을 많이 써 주셨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세 이하(U-20) 청소년 축구대표팀 사령탑인 홍명보 감독은 18일 서거한 김대중 전 대통령을 떠올리며 고인을 애도했다.

2002년 월드컵 당시 현직에 있었던 김 전 대통령은 성공적인 대회 개최와 한국의 4강 신화 창조에 숨은 지원자였기 때문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사태가 터진 직후인 1998년 2월 제15대 대통령에 오른 김 전 대통령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에 신축을 놓고 논란이 일던 서울 월드컵경기장을 짓도록 최종 결재했던 주인공이다. 김 전 대통령은 2002년 5월31일 자신이 건립을 지시했던 바로 그곳에서 고이츠미 준이치로 당시 일본 총리와 제

프 블레터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월드컵 개막을 선언했다.

당시 월드컵을 ‘국은 응성’의 원동력으로 승화시키겠다는 고인은 개막사를 통해 “축구 경기를 통해 세계인은 인종과 문화, 이념과 종교를 초월해 하나가 될 것”이라며 “인류의 공동번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다 이념적 코리아’도 체험해 달라. 이번 대회를 통해 세계 평화와 인류 화합의 새 시대가, 한일 양국간 우호 친선의 21세기가 열리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고인은 바쁜 일정을 쫓아 경기장을 찾아 태극전사들을 응원했고 대통령이 응원했던 경기에선 한국의 승리로 이어져 결국 16강 패거리에 맡겨버렸다.

김 전 대통령이 벌리 부산 월드컵경기장을 방문해 관전했던 폴란드(6월4일)와 D조 조별리그 첫 경기에선 황선홍의 선제골과 유상철의 추가골을 앞세워 2-0으로 승리했

다. 이어 김 전 대통령이 찾았던 인천 문학경기장에서도 한국은 박지성의 결승골에 힘입어 조별리그 3차전 상대인 포르투갈(6월14일)을 1-0으로 몰려쳐 감격스런 16강 진출 패거리를 달성했다.

사상 첫 16강 진출에 고무된 김 전 대통령은 경기장 내 라커룸을 찾아 자랑스러운 태극전사들을 격려했다. 당시 대표팀 주장이었던 홍명보 감독은 김 전 대통령에게 한국 축구 역사를 새롭게 쓴 선수들의 병역 특례를 건의했다. 고인은 그 자리에서 “축구 발전을 위해 중대 사안인 만큼 국방부 장관과 상의해 잘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대답했고 결국 태극전사들을 군 면제 혜택을 받았다.

홍명보 감독은 당시를 회상하며 “우리 선수들이 큰 무대에 나가는 발판을 마련해달라는 의미로 건의를 드렸는데 결국 받아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며 김 전 대통령의 도움이 컸음을 인정했다. /연합뉴스



무등경기장 애도 묵념

18일 광주 무등경기장에서 열린 2009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와 우리 히어로즈의 경기에서 선수들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를 애도하며 묵념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림픽 남북 동시입장 주역 스포츠 화합·발전 이끌었다

김운용 전 대한체육회장 겸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부위원장은 18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접한 뒤 “안타까운 마음에 뭐라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생각 이상으로 스포츠에도 이해가 깊으신 분이였다”고 한국체육과의 인연을 설명했다.

김운용 전 IOC 부위원장에 따르면 김 전 대통령은 임명 당시 “안타까운 마음에 뭐라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생각 이상으로 스포츠에도 이해가 깊으신 분이였다”고 한국체육과의 인연을 설명했다.

앞서 남북한은 1991년 세계탁구선수권대회와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에서 단일팀을 파견하기도 했지만 대부분 국제무대에 뛰러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생각 이상으로 스포츠에도 이해가 깊으신 분이였다”고 한국체육과의 인연을 설명했다.

그러나 2000년 북한을 방문한 김 전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상 회담을 통해 역사적인 시드니올림픽 동시입장에 합의했다. 당시 체육회장을 맡았던 김운용 전 IOC 부위원장은 올림픽 직전 후안 안토니오 사리안

치 IOC 위원장의 중재 속에 북측의 장웅 IOC 위원과 긴밀한 협의를 벌여 분단 이후 처음으로 개막식 동시입장을 이끌어냈다.

지난 해 베이징올림픽에서 무산되기 전까지 8년간 이어진 남북 동시입장은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과 2003년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에 북측이 선수단과 응원단을 파견하는 등 남북 체육교류가 활성화되는 데 기폭제 역할을 했다.

김 전 부위원장은 “당시 김 전 대통령은 동시 입장 뿐 아니라 남북한 단일팀을 구성하는 방안도 추진했는데 어렵게 성사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김 전 대통령은 1998년 2월 제15대 대통령 취임식에 사마란치 IOC 위원장을 초청하는 등 국제 스포츠 외교에도 깊은 관심을 보였다. /연합뉴스